

2022 으뜸인재 길라잡이





2022년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

인재는 전남의 희망입니다!



전라남도·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www.jeonnam.go.kr / www.jntle.kr

꿈을 키우는 새/싹/인/재

- 과학영재키움 초4 ~ 중1
 - 목포대, 순천대 과학영재교육원
 - 전문기관 인프라를 활용한 과학 교실 및 현장체험 운영
- 예능영재키움 초4 ~ 중3
 - 전남예술고, 한국창의예고, 진도국악고
 - 지역예술고의 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예능 전문교습
- AI 비전캠프 고1 ~ 2
 - 미래산업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한 이론과 현장체험을 연계한 인공지능 교육과정 운영
- 노벨캠프 고교생
 -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고교 과학동아리 연구지원
- 생각을 깨우는 인재학당 고교생
 - 석학 초청 인문학 교육
- 대학선배 멘토링 남도학숙 재학생, 도내 청소년
 - 대학 전공 및 진로 선택 지원, 인적 네트워크 형성
- 공공기관 진로체험 고1 ~ 2
 - 학교별로 공공기관 현장 방문, 미래산업 체험기회 제공

세계를 선도하는 핵/심/인/재

- 새천년 으뜸인재 중·고·대학생, 학교박청소년
 - 발굴대회를 통해 인재 선발, 맞춤형 재능개발비 지원 (연간 대학생 6백, 고등학생 5백, 중학생 3백)
- 전라남도 해외유학생 해외 대학 유학 희망자
 - 해외 대학 석박사 정규학위 과정 유학비 지원 (1인당 최대 1억원, 2년간 분할)
- 연구인재 역량강화 프로젝트 대학원생
 - 대학원생과 공공·기업 연구소의 공동연구 지원
- 글로벌 전문인재 대학생
 - 융복합 학위수여, 어학교육, 국내외 캠프 및 현지연수 지원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혁/신/인/재

- 대학생 무한도전 프로젝트 대학생
 - 학습역량 강화 및 진로 선택을 위한 도전과제를 스스로 발굴, 실천함으로써 미래인재 성장 지원
- 변화를 선도하는 경제마당 CEO, 기관단체
 - 최신 경제동향 특감 및 지역의 대응방안 토론의 장
- 지역공동체 희망더하기 사회단체
 - 사회단체 구성원의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
- 도민행복대학 도민
 - 남도학 첫걸음 : 지역의 역사, 문화, 지리 등 교육과정 운영
 - 일상에서의 시민교육 : 민주주의, 인권, 소통 등 토론 중심의 생활밀착형 시민교육



들어가는 글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파도 속에서 미래의 희망이자 원동력인 인재의 소중함은 갈수록 그 정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곳곳의 인재들은 경제적 어려움, 지역 공동체의 관심 부족 등으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전라남도는 지난 2019년부터 ‘인재가 전남의 희망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를 시작해 3개 분야 1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1,308명, 2021년 2,078명 등 최근까지 모두 7,039명의 해외 유학생, 으뜸인재, 예능영재, 노벨캠프 인재 등을 발굴해 자신의 꿈을 달성하고 나아가 지역 및 국가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몇몇 학생들은 국내외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세계 유수의 대학 및 대학원에 우수한 성적으로 진학하는 등 지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2022년 전라남도가 선발한 새천년 인재 20인의 값진 발자국을 기록했습니다. 이들의 짧지만 열정 가득한 여정과 다짐을 이정표로 삼아 전남 각지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지역의 청소년들도 ‘꿈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전라남도는 꾸준히 노력하는 지역 인재들을 늘 관심을 갖고 지켜보며, 필요한 것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을 때까지 지역공동체도 부단히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 인재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일에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전라남도는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비전으로,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과 국가, 나아가 세계에서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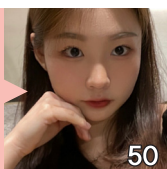
제3기 해외유학생 KAIST 취리히연방공과대 김신정 08	제3기 해외유학생 전남대 美 UIUC 예정 김채연 12	제3기 해외유학생 목포대 美 미네소타대 김현준 16
연구인재 한국에너지공대 김재훈 22	연구인재 목포대 안소연 26	무한도전프로젝트 전남대 조민희 32
예능영재 해남두륜중 최영홍 38	노벨캠프 정명여고 오소연 44	





새년천 으뜸인재

순천효산고
이지유



50

새년천 으뜸인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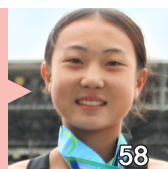
동신대
이현수



54

새년천 으뜸인재

전남체육고
이은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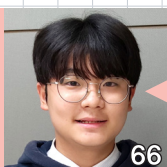
58



62

새년천 으뜸인재

서울대 대학원
남해은



66

새년천 으뜸인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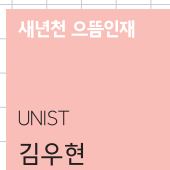
영광홍농중
고상훈



70

새년천 으뜸인재

한국예술종합학교
김사라



UNIST
김우현



74

새년천 으뜸인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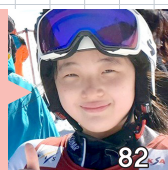
고흥산업과학고
김민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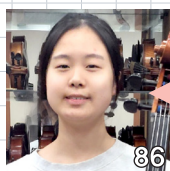
78

새년천 으뜸인재

여수삼일중
강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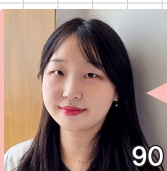
82



86

새년천 으뜸인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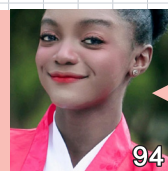
전남예술고
노하은



90

새년천 으뜸인재

순천대
최세아



94

새년천 으뜸인재

진도국악고
최은지

2 0 2 2

으 뜸 인 재

길 라 잡 이

I

전라남도 해외유학생



선발대상_

해외대학 석·박사 학위과정(전공분야 제한없음)

선발인원_

3명 내외

지원금액_

1인당 최대 1억원(2년간 분할)

지원자격_

주소가 전남인 도민 또는 도내 소재 초·중·고·대학교 중 하나를 졸업(예정)한 출향도민

선발절차_

서류심사→역량면접(PT발표, 집단토론)→심층면접

문의_

전라남도청 희망인재육성과(061-286-34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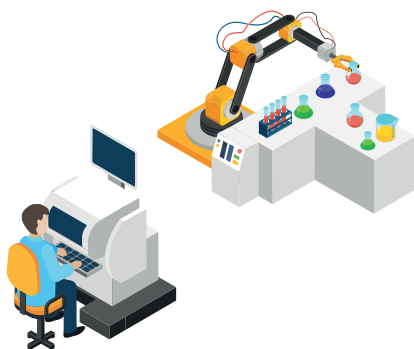


김 신 정



제3기 해외유학생

- KAIST
- 취리히연방공과대
- 대한민국 인재상, 카이스트 총장상
-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과대 컴퓨터공학 석사과정 입학허가



道 해외 유학생 선정...취리히 연방 공과대학원 입학
“로봇이 공간 인식하고 역할 수행하는 부분 연구할 것”

“앞으로 컴퓨터 비전(시각)에 관한 분야, 그 중에서도 특히 공간 인식에 관련된 주제들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컴퓨터 비전과 공간 인식은 로봇청소기, 자율주행자동차에 사용되는 인공지능에도 들어가는 겁니다.”

딥러닝(Deep Learning, 사물이나 데이터를 군집화하거나 분류하는 데 사용하는 기술)을 포함해 로봇의 공간 인식 분야의 세계적인 리더가 되겠다는 김신정(23·카이스트 전산 및 전기·전자 학사)씨.

그는 전남도의 제3기 해외 유학생으로 선정돼 2022년 9월 5일 스위스 취리히 연방 공과대학원 석사 과정에 입학하기 위해 출국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 독일 막스프랑크연구소 등에서도 좋은 조건을 제시했으나 구글 지사, 마이크로소프트 지사 등 인공지능 관련 산업적인 기반이 탄탄하게 갖춰져 있는 스위스 취리히를 선택했다.

“목포에서 태어나 중학교까지 다니고 광주과학고에 진학했는데, 다들 대단히 공부를 잘하더군요. 전국에서 물려든 수재들과 맞서



2022 으뜸인재
제3기 해외유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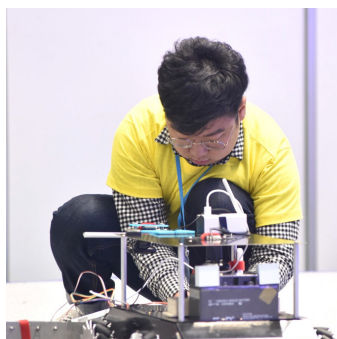
김신정

기 위해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 했어요. 카이스트 들어가서는 4년간 매일 10시간씩 책과 씨름했습니다. 공부를 좀 하다보니 보통 학부 3~4학년에 시작하는 개별연구를 2학년 때 시작해 전공 교수 연구실에서 들어가 연구 인턴 활동도 함께 하게 됐어요.”

4.3점 만점에 4.21점을 맞을 정도로 학과 공부에 매달렸던 그는 컴퓨터 비전 학술대회에 공동저자로 논문 2편을 제출, 우수 논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카이스트총장상, 대한민국 인재상 등을 받는 등 인정도 받았다.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공학키트를 가지고 놀 정도로 과학과 로봇에 대해 관심이 있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는 목포시영재원에 다녔고, 중학교 3학년 때는 전남정보영재원 프로그래밍 고급과정에 들어가 C언어, 이산수학 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지역에서 큰 도움을 받았죠.”

자신이 공부할 곳을 취리히로 정한 것 역시 취리히가 인구 규모 및 구성, 산업 여건 등의 면에서 전남과 유사하기 때문이었다. 자신이 성장하는데 유무형의 지원



을 해준 전남의 미래를 위해 전공만이 아니라 산업 기반에 대해서도 잘 살펴볼 생각이다.



“카이스트에 들어가면서 전남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과학·공학을 체험할 기회가 너무 적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후 광주과학문화축전에서 중력과 관성을 이용한 과학체험부스를 운영해보기도 하고, 목포시 학교박청소년지원센터에서 검정고시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수학과 과학을 가르쳤습니다. 코로나로 대면 강의를 불가능해지면서 온라인 교육 기부 사업에 참여, 유튜브로 프로그래밍과 과학교육용 키트 조립 영상을 업로드해 공유하기도 했지요.”

그는 석·박사 과정에 5~6년, 박사 후 연구원으로 2~3년을 스위스에서 보낸 뒤 귀국할 예정이다. 귀국 후에는 전남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해볼 생각이다. 과학에 관심 있는 후배들에게 직접 제작한 과학키트를 제공하거나 지역 선배로서 향후 진로를 고민중인 후배들에게 방향을 잡아주는 방안 등이 현재는 유력하다.

“주변에 고마운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선 지난 2018년 돌아가신 아버님, 그리고 그 뒤 저를 뒷바라지하느라 고생하신 어머님(전순옥:64)에게 앞으로 있을 모든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저를 지켜보고 도와주는 친구들, 주변 선후배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어요. 무엇보다 저를 도비 유학생에 선발시켜 준 전남도와 전남도민에게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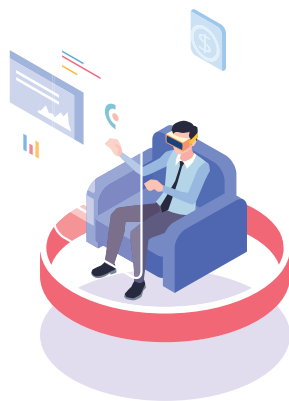


김 채 연



제3기 해외유학생

- 전남대
- 미국 UIUC 교육공학 박사과정 준비 중
- 교육공학 논문 4편(SCI 1편, KCI 2편 등)
- 학술대회 35차례 발표



교육공학 논문 4편, 학술대회 35차례 발표
2023년 8월 미국 UIUC 박사과정 지원 예정

“교육공학이라는 분야가 생소했는데, 류지현 지도교수님 덕분에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2023년 8월 미국 UIUC(University of Illinois Urbana Champaign) 박사과정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저는 증강·가상현실 프로그램을 이용해 교사, 의사 등의 실기 능력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전남도 유학생 제3기로 선발된 김채연(여·25·전남대 교육학 석사·사진)씨는 교육공학 분야에서 이미 SCI급 1편, KCI급 2편 등 4편의 논문을 작성하고, 학술대회에서 35차례나 발표해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져 있다. 그녀의 석사 논문도 주목을 받았다. 예비교사와 현직교사의 학습 효과를 측정하는데 얼굴 표정, 뇌파 등 생체데이터를 이용해 기존 설문조사 방법보다 오류를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학비를 걱정하시던 아버지(김성남·57)와 어머니(권보운·55)에게 유학생 선정 소식을 알려드렸는데, 너무 행복해하시더라고요. 전남도민의 지원을 받아 유학길에 오르는만큼 앞으로 학습 자원이



2022 으뜸인재
제3기 해외유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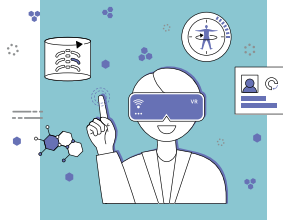
김채연

부족한 전남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하고 실제로 지역 발전에 기여도 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김씨는 특별히 류지현 석사과정 지도교수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학부 때부터 다양한 국내외 학술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 교육공학의 매력과 연구의 즐거움을 알 수 있게 해줬다는 이유에서다.

“교수님 덕분에 멀게만 느껴졌던 유학이라는 꿈을 키우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늘 새로운 아이디어에 도전하는 도전정신과 한 수 앞을 내다보는 전향적인 안목을 본받아 저도 교육공학 분야에서 진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녀는 고등학생이 되면서 교육학에 대해 공부할 것을 결심했다. 전남도교육청 토론논술 캠프, 하이플러스 프로젝트 인문학 강좌 등에 참가하고, 교내 토론



동아리에서 주로 교육을 주제로 다룬 학생들과 이야기하며 생각을 키웠다. 대학에 들어가서는 가상 학습을 통해 학습자가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시뮬레이션 기반 학습 방법'을 배우면서 그 가능성에 매료됐다.



“**시**뮬레이션 기반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의 상태를 분석하고 최적의 학습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 ‘학습분석학’을 더 심도있게 연구하기 위해서는 유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미 학부 시절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교사교육학회에 참석해 미국 등 다른 나라의 학자들과 이에 대해 회의하고 시뮬레이션을 연구하기도 했기 때문에 자신도 있습니다.”

김씨는 석사과정에 들어가서는 매년 미국교육공학회에 발표자와 봉사자로 참여했고, 이 과정에서 미국 대학교수들의 눈에 띄어 사우스플로리다대학교의 교환학자로 가 증강현실 기반 교사교육 시뮬레이션을 개발, 미국교육공학회에서 출판하는 북 챕터에 게재되기도 했다. 또 학내에서는 대학원을 조기졸업하고, 최우수 대학원생으로 선정되는 등의 성과를 쌓았다.

“**일**단 미국의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큼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전남도민들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 같은 후배가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김 현 준



제3기 해외유학생

- 목포대
- 美 미네소타대
- 공과대학 전체 수석/ 현대삼호중공업 재직
- 미국 미네소타 기계공학 석박사과정 입학허가



미국 미네소타대 석박사 통합 과정 입학 18일 출국
대학 최우수 인재상 수상··美 기계기사 자격증 취득

“저에게 이런 기회가 올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집안이 좀 어려워 대학에 다니면서 조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졸업 후에는 현대삼호중공업에 취직해 유학비를 모았어요. 어렸을 때 방황하면서 게임에도 중독돼 공부를 멀리했다가 부모님이 고생하시는 것을 보고 군대 갔다와서야 비로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전남도 제3기 유학생으로 선발된 김현준(29·목포대 조선공학 학사·사진)씨는 비교적 낮은 나이에 미국 미네소타대 석박사 통합 과정의 입학허가를 받아 2022년 8월 18일 출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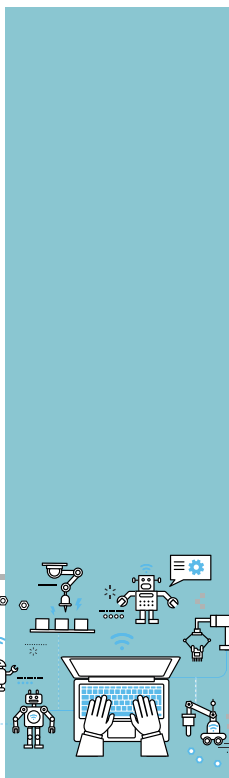
단과대 수석(4.5 만점에 4.36), 대학 최우수 인재상 수상, 미국 기계기사(FE mechanical) 자격증 취득 등 화려한 이력을 갖고 있지만, 어렵게 공부의 길에 들어선 ‘늦공부파’다.

“어릴 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경제적으로 썩 좋지 못했어요. 고등학교까지 거의 공부를 안 했고, 군대에 갔다와 대학 2학년이 된 뒤에야 책을 잡았습니다. 박종환·나승수 교수님이 도움



2022 으뜸인재
제3기 해외유학생

김현준



을 많이 주셨죠. 영국 유학에 대해서도 조언해주셨고, 제가 캐나다에 워킹홀리데이를 갔을 때도 현대삼호중공업 추천서를 써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의 노력은 상상 이상이었다.

지난 2015년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유학을 가기로 결심한 뒤 2개월만에 토익 점수를 400점에서 955점으로 끌어올리고, 교내 글로벌 익스플로어 프로그램 장학생으로 선발돼 캐나다, 싱가포르에서 어학연수를 했다. 캐나다에 워킹홀리데이를 하고 있을 때 교수 추천으로 현대삼호중공업에 입사한 뒤 4년간 기계 엔지니어로 재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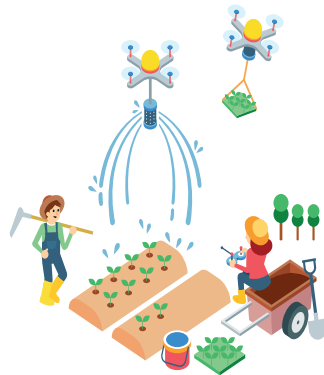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건조기술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응용 과학을 전공으로 선택할 예정인데, 4년간의 경험이 상당한 도움이 됐습니다. 회사에 다니면서도 목포대 링크사업단 글로벌 비즈니스 링커로 전남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거나 전남도교육청 주관 해외 영어봉사 프로그램의 장학생으로 무안 해제초교에서 영어교육 봉사에 나서는 등 지역사회에도 기여하려고 최선을 다했죠.”

김씨는 지역의 도움으로 자신이 성장했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믿음은 시간이 날 때마다 지역 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봉사의 길로 이끌었다. 무안군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영어·수학·과학 교육 봉사와 멘토링에 나서고, 사단법인 기부천사 단체에 정기적인 기부를 통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은 미국 기계 기술사 자격증 취득을 준비 중입니다. 앞으로 미국에서 기계공학과 인공지능의 융합에 대한 연구를 해 볼 생각입니다. 관련 강의도 열심히 듣고 있고요. 박사학위를 받고 연구원을 거쳐 귀국하면 전남의 풍부한 신재생 에너지를 미래 신동력 산업과 연계하고 스마트 농어업 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전남에서 태어나 전남의 도움으로 기회를 얻은 만큼 후배들에게 이 경험과 노하우를 전달하는 것에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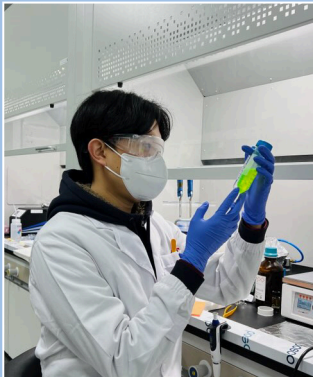
2 0 2 2

으 뜸 인 재

길 라 잡 이

II

연구인재 역량강화 프로젝트



선발대상_

전남 소재 대학 석·박사과정 재학생

연구주제_

지역의 미래산업 또는 지역현안(세부제한 없음)

연구기관_

공공연구소, 지자체 출연기관, 기타 민간연구소 등

신청절차_

대학원생 → 소속대학 →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심사과정_

서류심사(30%) + 면접심사(70%) → 합격자 발표

지원범위_

공동연구지원금(2개월 ~ 최대 10개월, 자율결정)

문의_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061-285-94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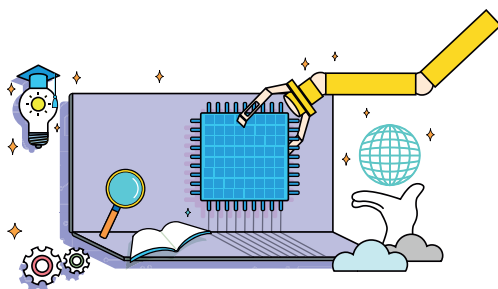


김 재 훈



연구인재('22)

- 한국에너지공과대
- 조선대 생명화학고분자공학 학사
- 고성능 유무기 복합 페로브스카이트 소재 개발 및
광전자 소자 응용 연구



조선대 졸업 후 입대도 미루고 실험·연구에 몰두
한국공업화학회 등 국내 학회 8차례 저자로 참여

“한국에너지공대(켄텍, KENTECH)에 들어와보니 이제야 비로소 제가 가야 할 길위에 섰다는 느낌입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교수님들, 전국에서 모여든 석학들과 거의 일대일로 실험하며 자유롭게 자신의 전공에 대해 토론하는 것이 너무 즐겁습니다. 시설이나 인프라도 하나씩 갖춰지고 있고요.”

켄텍 에너지공학과 석박사 통합과정을 다니고 있는 김재훈(23)씨. 조선대 생명화학공학과를 졸업한 뒤 각고의 노력으로 높은 경쟁률을 이겨내고 첫 입학생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다.

대학에 다니면서 이미 한국공업화학회에 주저자로 논문을 발표하는 등 국내 학회에서 8차례나 주저자 또는 공동저자로 나선 그는 제2기 연구인재로 선정돼 ‘고성능 유무기 복합 페로브스카이트 소재 개발 및 광전자 소자 응용’을 과제로 연구하고 있다. 쉽게 풀이하면 반도체, LED 등에서 빛을 내는 발광소자를 만드는 것으로, 가격·기술 경쟁력 등에서 더 우월한 것을 개발하는 것이다.



2022 으뜸인재
연구인재('22)

김재훈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의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더 좋은 제품을 더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박사 학위를 받은 뒤에는 외국 대학에서 경험을 좀 더 쌓고 귀국해서 교수나 연구자로 연구를 계속할 생각입니다.”

대학에 다닐 때 군입대를 미룰 정도로 실험 수업에 흥미를 느꼈다.

‘왜’를 시작으로 한 실험을 진행하다보면 목표했던 대로 결과가 안 나오거나 아예 실험 자체가 실패하는 경우 이를 극복해내는 과정 자체를 즐겼다.

학부에서는 이정수 지도교수, 켄텍에서는 이승진 지도교수 등의 도움이 컸다. 학부때부터 같이 연구하고 켄텍에도 함께 진학한 친구 정진주씨, 아버지(김윤식·56)와 어머니(정숙희·52)의 든든한 지원도 그를 뒷받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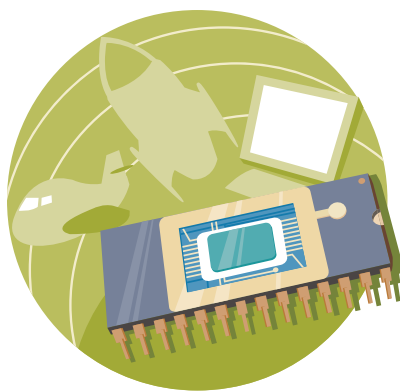
“중고등학생 때도 화학을 좋아했어요. 대학에 들어간 뒤에는 ‘미래에너지 효율 향상 융합인재 양성 프로젝트’에 멘토로 참여하기도 했고요. 학부 1학년 때 실험실에 들어갈 기회가 생기자 군

입대를 취소하고 실험실에 들어가 학부연구원으로 생활한 것이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된 것 같습니다. 3학년 때는 무기 재료에 관한 논문을 독학으로 공부할 정도로 관심도가 높아졌고요.”

김씨는 전남도와 도민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꾸준히 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것에 감사한 마음이다. 자신의 연구가 미래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다.



“실험이나 연구를 하면서 너무 몰두한 나머지 특정 단계에서 계속 정체된 적이 꽤 있었어요. 그때마다 지도교수님이 나무만 보지말고 숲을 보라며 전체적인 구도를 설명해주시곤 했습니다. 그것이 큰 도움이 됐어요. **저도 후배들에게 그런 큰 그림과 전체적인 구도를 알려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안 소 연



연구인재('22)

- 목포대
- 한국근대사 전공 석사
- 전남의 근대여성 인물과 활동 양상에 관한 연구



여성사 연구자 · 연구 결과 매우 빈약...관련 자료 없어 어려움 커
전남 근대 여성 인물 리스트 작성하고 여성사 전문 연구자 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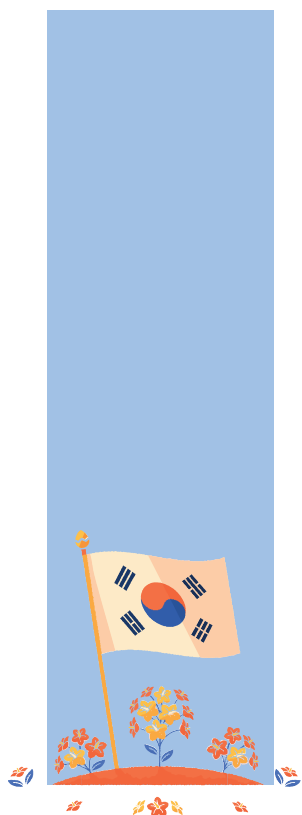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건에서 우리나라의 발전에 기여한 근대 여성들을 발굴해 알리는 연구자가 되고 싶어요. 객관적으로 공정한 시각에서 최대한 가려져 있는 여성들의 공적을 알리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올 1학기를 끝으로 목포대 일반대학원 사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하는 안소연(여·27)씨가 2022년 전남도의 연구인재로 선정됐다. 목포대 사학과에 진학한 후 여성사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했고, 그 결과로 졸업 논문(근대 신여성의 삶과 출현 배경-나혜석의 삶과 작품 활동을 중심으로)을 제출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졸업 후에는 여성사와 관련된 여성박물관 큐레이터에 도전하기 위해 1년여간 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예사 자격 시험을 준비해 합격하기도 했다.



2022 으뜸인재
연구인재('22)

안소연



“최근 한국 사회에서 젠더 갈등이 부상하면서 여성사 연구가 활기를 띠고 있지만, 전남지역의 경우 그 같은 연구자나 연구 결과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어서 반드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부 시절에는 자료를 읽어야 한다는 생각에 한문 강독 능력을 꾸준히 습득하기도 했습니다.”

준학예사 합격 후에 더 전문적인 자질을 갖추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해 다양한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최성한 교수의 지도를 받으며, 전남지역의 역사기록물 자료를 발굴하고 정리하는 역할을 맡아 전남지역 근대사 연구에 대한 방향을 정하고 경험도 쌓았다.

“근대 여성 인물을 조사하는데 실질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어 어려움이 큼니다. 진술만으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어요. 대부분 일제강점기 재판 자료를 인용하는데, 여성 관련 자료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근대에 활동했던 전남 여성 인물의 리스트를 작성해 정리할 생각입니다.”

뒤늦게 공부에 뛰어든 안씨에게 아버지(안찬식·58)·어머니(김연순·53)는 언제나 든든한 조력



자가 되고 있다. 함께 공부하고 있는 석사연구생들도 안씨의 연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대학원을 졸업해 박사학위를 취득한다면 전남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할 수 있는 전문 연구직에 지원해 전남지역 여성사 전문 연구자로 활

동하고 싶습니다. 여성 운동의 중요성과 여성운동가들의 활동을 조명해 후학들에게 남겨줄겁니다. 후배들이 저처럼 시행착오를 겪는 일 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좋은 연구자료를 만들겠습니다.”



2 0 2 2

으 뜸 인 재

길 라 잡 이

III

대학생 무한도전 프로젝트



선발대상_	도내 대학생(3명이상)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20팀 내외
지원금액_	팀당 최대 1,000만원 활동비 지원
신청자격_	공고일 기준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활동분야_	자유형식 ※단, 단순자격증 취득 및 어학 시험 활동 제외
선발방법_	(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
접수방법_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www.jntle.kr) 접수
문의_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061-285-94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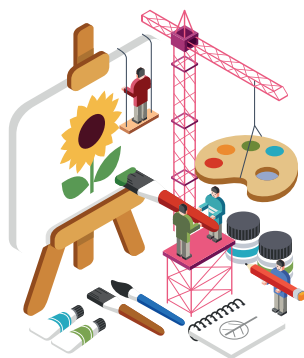


조 민 희



무한도전 프로젝트('22)

- 전남대
- 참여 프로젝트명 “다붓다붓 이웃4촌”
- 전남4촌(보성, 함평, 영광, 완도)의 독창적 이야기를 미술작품으로 창작



설화 등 문화·역사 자산 발굴 ‘무한도전 프로젝트’ 진행
“아카이브 자료 제작, 콘텐츠 개발 선행사례 제공할 것”

“**저** 고향이 보성이에요. 부모님을 뵙기 위해 내려갈 때마다 인구가 줄어가고, 어린이들도 없어서 점점 삭막해져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향에 사람들이 찾고, 인구 규모를 유지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을 때 교수님이 한 번 전남도의 무한도전 프로젝트에 도전해볼 것을 추천해주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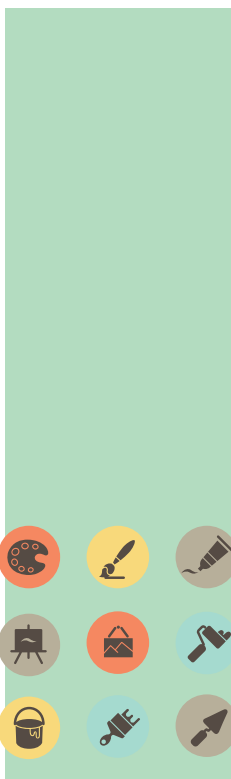
지역 청년들이 자신의 역량 강화와 진로 선택을 위해 도전과제를 선택하면 전남도가 활동비를 지원하는 ‘무한도전프로젝트’에 선정된 조민희(여·22·전남대 미술학과 한국화 전공 4년)씨는 지역의 문화·역사 자산을 조사·발굴해 그림을 그려 전시하는 계획을 세웠다. 녹차, 판소리(서편제), 벌교 꼬막 등 널리 알려진 것은 제외하고 직접 각 마을의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돌며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인터뷰해 마을의 자산을 찾을 계획이다.

“**그**림의 배경이 될만한 것을 직접 주민들에게 들어보는 것이 이번 조사의 취지입니다. 혼자 할 수는 없어서 학과실에 부탁해 참가 학생들을 모집, 팀을 구성했어요.”



2022 으뜸인재
무한도전 프로젝트('22)

조민희



조씨는 4학년 박수영(함평 출신)씨, 1학년 김민서(영광 출신)·박성영(완도 출신)씨 등과 전남이 고향인 학생들과 함께 팀 '다בות다בות 이웃4촌'을 만들었다. '다בות다בות'은 '여럿이 다 매우 가깝게 붙어 있는 모양'을 의미하는 우리말이다.

“제가 태어나고 고등학교까지 나온 보성읍이 참 좋았어요. 아버지(조석현·49)와 어머니(이은미·44) 덕분에 시골임에도 태권도, 밴드, 미술 등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태권도로는 품새, 겨루기 대회에 나갔고, 밴드로는 보성읍 사회복지관 소속 밴드에 들어가 여러 행사에서 공연을 하기도 했죠.”

조씨는 그러나 고등학생 때 자신을 열심히 도와준 미술 선생님에게 감동을 받아 미대 진학을 결정했다. 교내 미술대회에 나가거나 미술 동아리에서 활동할 때, 광주로 미술학원을 오갈 때도 선생님은 아낌없이 지원해줬다.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졸업 후에는 교육대학원에 진학해 임용고시를 보고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작가로서 보성에 작은 갤러리를 운영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그녀의 좌우명은 ‘포기를 모르고 살자’다.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자신의 꿈을 보다 현실에 가깝게 하고 싶다. 이번에 팀원으로 함께 할 박수영씨와는 국립공원공단 무등산생태탐방원과 전



남대가 주최한 ‘상생+’ 전시에 함께 작품을 출품한 이력이 있는 등 손발을 맞춰왔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소멸해가는 지역과 안식이 필요한 도시민을 연결하면서 지역의 숨겨진 이야기를 발굴하고 미술작품으로 공유하기를 바란다.

“여로부터 각 마을마다 전해지는 지역 고유의 설화 등을 채록하고 풍경과 함께 스케치해 지역만의 독창적인 미술작품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작품은 전시회를 통해 지역민과 도시민들 모두가 볼 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또 프로젝트의 모든 과정들을 아카이브 자료집으로 제작해 향후 후속 연구자 및 사업자에게 지역문화콘텐츠 개발의

기초와 선행 사례로 제 공하겠습니다.”



2 0 2 2

으 뜸 인 재

길 라 잡 이

IV

예능영재 키움



선발대상_

도내 초등학교 4학년 ~ 중학교 3학년 청소년

모집분야_

서양음악, 국악, 미술, 무용

지원자격_

주소·소득·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① 주소 : 부(또는 모)와 학생의 주민등록이 전라남도인 자

② 소득 : 가구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

③ 자격 : 최근 3년 광역대회 입상 또는 지도교사 등 추천

선발절차_

1차 서류심사 → 2차 실기 및 면접시험

지원내용_

주말·방학을 이용한 전문교습, 전시회 등 현장체험 실시

문의_

전라남도 희망인재육성과(061-286-3443)





최 영 홍



예능영재('19, '20, '21, '22)

- 해남두륜중
- 전남예고(서양음악) 강습
- 2019 블루이코노미 비전선포식 축하공연 참여



초3때 예능영재로 뽑혀...초6때 고정희 시인 추모음반 참여
 “세월호 공연 이후 노래로 치유 · 감동 주는 사람 되겠다 다짐”

“4년 전이었어요. 우연히 성악가이자 팝페라 가수인 임형주의 노래 ‘바람이 되어’를 듣고 나서 5개월 동안 매일 불렀습니다. 그 뒤 주변 어른들의 추천을 받아 전남예고 예능인재 성악 오디션을 보고 노래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콩쿠르에 나가고 싶은데, 더 실력을 키워야 하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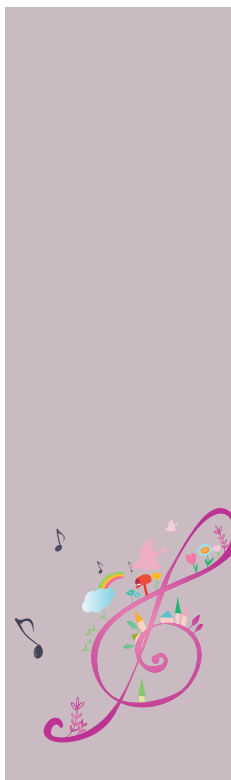
지난 2019년 전남도 예능인재로 선정된 최영홍(13·해남 두륜중 2년)군은 2019년 전라남도 블루이코노미 비전 선포식 축하공연을 하면서부터 지역 내에서 이미 노래로 꽤 이름을 날리고 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지역 내 각종 대회에 나가 상을 받으면서 큰 무대에 적응력을 높이고 있다. 또 매주 전남예고에서 레슨을 받고, 2~3일은 배운 노래를 연습하며 보내고 있다.





2022 으뜸인재
예능영재('22)

최영홍



“가장 존경하는 성악가는 조수미 선생님이죠. 그 분이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엄격한지는 아버지(최동금·52)와 어머니(이윤희·47)가 말씀해주셔서 잘 압니다. 아직은 친구들이 너무 좋아서요. 앞으로는 더 열심히 연습할 생각입니다.”

최군이 지역 내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것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다. 아버지의 소개로 지역공연단체에서 노래를 불러본 뒤 공연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이 단체는 해남 시인들의 작품을 노래로 편곡해 공연하는 시노래 공연기획제작 단체인 ‘담소’였다. 노래를 부르면서 부족한 부분은 예능영재로 뽑힌 뒤 성악 수업을 들으면서 보완했다. 이후 함께 공연하는 사람들은 최군의 발성이 나아지고 있다며 칭찬했다고 한다. 실력이 늘면서 초등학교 6학년 때는 해남 시인인 고정희 시인의 추모사업회에서 기념음반을 내는 사업에 참여하기도 했다.

“진도 팽목항에서 세월호 추모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한 유가족분이 다가오셔서 고맙다고 직접 말씀하셨는데, 노래라는 것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를 먼저 보낸 아픔까지도 치유할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죠. 앞으로 노래를

통해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최군은 수학, 과학, 지리, 역사 등에도 재능을 보이고 있다. 노래하는 것보다 친구들과 축구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하지만 해남 민예총 총회 축하 공연, 해남 미항사 합창단 공연 등 여러 공연을 하면서 자신의 노래를 듣는데 집중하는 관객들의 표정을 잊을 수 없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노래의 매력인 것 같아요. 시골이어서 전문적인 교습을 받기 힘든 여건이지만 예능영재가 돼 계속 저 자신을 다듬을 수 있다는 것이 참 다행입니다. **더 많은 분들을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 더 노력하는 성악가가 되겠습니다.**”



2 0 2 2

으 뜸 인 재

길 라 잡 이

V

노벨캠프



선발대상_

도내 고등학교 이공계 분야 (자율)동아리

지원금액_

팀당 6백만 원

지원내용_

동아리 연구수업비, 교육비, 교재비, 강사비 등

선발방법_

연구계획서 서류심사(100%)

선발분야_

AI 인공지능, 전기, 전자, 화학, 물리, 생명과학, 지구과학 등
이공계 분야 자유

문의_

전라남도 희망인재육성과(061-286-3442)



노
벨
캠
프



오 소 연



노벨캠프('21)

- 정명여고
- 참여팀명 : The Cell(곡물을 이용한 천연비료 제작 가능성 연구)
- 21개 참여 팀 중 1위



동아리 친구들과 ‘노벨캠프’서 1년 간 수질오염 연구
“화학물질 유해성 연구해 건강한 식품 만들고 싶어요”

“아무리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입시를 앞둔 인문계 고교생들이 교과서’적인 과학 연구가 아닌, 스스로 설계하고 계획하면서 과학 실험을 진행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한테는 너무 좋은 기회였고 경험이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경험을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 지역 후배들에게 더 많이 지원됐으면 좋겠어요.”

오소연(19·목포 정명여고 3학년) 양이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남도의 ‘새천년인재육성프로젝트 노벨캠프’에 참여해 자신만의 연구와 실험을 했던 것은 특별한 경험이었다.

정명여고가 주변 다른 학교들에 비해 실험실이 잘 갖춰져 있는 학교임에도,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성적과 관련있는 교과서적인 실험, 결과가 정답지 처럼 나와있는 실험 외에 자신만의 실험을 하기로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기 때문이다.

오 양 뿐 아니다. 막상 실험을 하려고 해도 의미있는 실험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실험 장비·시간 등도 확보하기가 여의치 않은 게 현실. 이같은 현실을 맞닥뜨리면 시간 낭비만 할 것 같아 포기하는 인문계 학생들이 적지않다.

전남도의 인재육성프로젝트의 하나인 노벨캠프는 이러한 학생들





2022 으뜸인재
노벨캠프('21)

오소연

의 '원픽'(최고) 프로그램이었다. 노벨캠프는 전남 지역 이공계 분야 동아리 학생들에게 다양한 과학 연구 경험을 제공해 미래 과학 인재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오 양은 생명과학에 관심이 많아 화학을 좋아하는 다른 친구들과 '더 셀'(The cell)이라는 팀을 이뤄 노벨캠프에 참여했다.

연구 주제는 평소 동아리 활동을 통해 실험해보고 경험해보면서 관심이 있었던 수질 오염 분야로 택했다. 수능 준비로 바쁜 고 3 시기에도 일주일에 3권 정도의 책을 읽는 것도 주제 선정에 도움이 됐다고 한다.

화장품에 관심이 많은 한 친구의 "쌀뜨물 화장품은 어때?"라는 제안에 호기심이 생긴 다른 팀원들과 자료 조사를 하던 중 '쌀뜨물이 하천에 방류되면 물에 용해된 산소가 급격히 줄어들어 다른 생물들이 살기 힘들어진다는 내용의 '쌀뜨물이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기사를 접했다.

환경오염을 시킨다고 하니 환경오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쌀뜨물을 흘려보내지 않고 모아서 비료를 만들어보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실험 주제도 '곡물을 이용한 천연비료 제작 가능성 연구'로 자연스럽게 결정됐다는 게 오 양 설명이다.

연구 주제를 결정하는 데 한 달이 걸렸고 기본

실험 들어가기 전 기초실험, 쌀뜨물이 정말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지 관찰해보고 실험군을 마련해 키우기 전 실험 키트로 해보는 데도 4~5개월이 걸렸다고 한다.

본 실험에 들어가서는 실험용으로 주로 쓰이는 식물인 '애기장대'를 심은 뒤 쌀뜨물 외에 보리, 귀리, 화학비료 등으로도 실험을 하며 키우는가 하면, 쌀뜨물만이 아니라 쌀뜨물과 계란, 바나나를 섞어 넣거나, 쌀뜨물에 음식물 쓰레기를 추가해서 넣은 물을 주며 성장 상태 등을 관찰, 기록했다고 한다.

대략 14가지 실험군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 지난해 3월부터 시작, 올 2월에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마무리해 고박 1년이 걸린 셈이다. 경험 많은 선생님의 지도는 실험을 무사히 마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결과는 어땠을까. 오 양은 "쌀뜨물 비료에 음식물 쓰레기를 추가해서 넣은 물로 키웠을 때 가장 잘 성장했다"고 귀띔했다. 오 양 등이 참여한 더 셀은 노벨캠프에 참여한 21개팀 중 연구결과보고서와 발표심사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오 양은 "입시 준비하는데 방해될까 걱정하긴 했는데, 정말 얻은 게 많은 시간이었다"면서 "하고싶은 연구와 실험에 대한 경험은 경쟁력 있는 활동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오 양은 향후 진로를 식품 연구쪽으로 고민하고 있다. 실험을 통해 환경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데다, 환경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는 만큼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연구하면서 더 건강한 식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연구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털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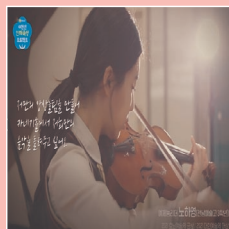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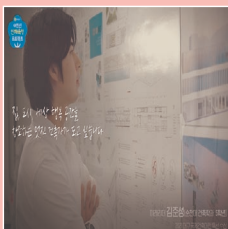
2022

으뜸인재

길라잡이

VI

새천년 으뜸인재



선발분야_

2개 분야(미래리더, 예체능리더)

지원금액_

대학생 6백만원, 고등학생 5백만원, 중학생 3백만원

지원내용_

맞춤형 재능계발비, 전문가 멘토링 등

선발방법_

서류심사 및 실기·심층면접

지원기간_

1 ~ 6년 / 최대 12년(중1~대6)

- 대학생 : 소속 대학/학과의 정규학기 내(2~6년제)

- 중·고등학생 : 1~3년(으뜸인재로 선정된 해부터 졸업시까지)

- 학교 밖 청소년 : 1~4년(중·고·대 기간에 맞게 지원)

문의_

전라남도 희망인재육성과(061-286-3422)





이 지 유



새천년 으뜸인재('21)

- 순천효산고
- 예체능리더(요리)
- 2021 코리아 월드푸드 챔피언십 금상



전문성 · 열정 갖추고 경연대회 잇단 수상 · 봉사활동도
 “스무살엔 국가대표 목표...후배들에 재능기부 할 것”

“**전**국대회에 나가보니 정말 실력이 대단한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시간에 맞춰 요리를 만들면서도 작품의 퀄리티를 높이는 연습을 더 해야 합니다. 8월 28일 전북에서 기능경기대회가 있는데, 가장 자신있는 양식으로 우승에 도전해볼 생각입니다.”

2021년 전남 으뜸인재로 선정된 이지유(여·19·순천 효산고 3년·사진 왼쪽)양은 매일 요리학원을 찾아 시간을 지켜 문제로 나온 음식을 요리하는 연습을 하고 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요리하는 것을 즐겨해 옆에서 보고 배우면서 성장했다는 그녀의 꿈은 존경 받는 요리사다.

“**최**근 최영준 요리 기능장(대구공업대 교수)께서 만든 콘소메 스프를 맛보고 나서 충격을 받았어요. 야채와 고기로 만든 맑은 스프에서 이런 맛이 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죠. 맛을 내는



2022 으뜸인재
새천년 으뜸인재('21)

이지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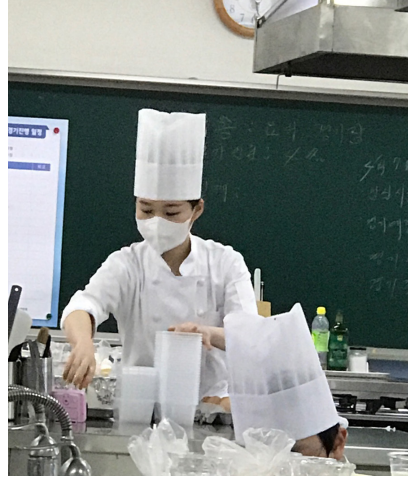
방법을 아는 사람이 만든 음식은 무엇이 달라도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태도 및 품성이 뛰어나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열정이 높다는 심사평을 듣고 인재로 선정됐다. 맛있는 요리에 대한 집념이 대단하다는 칭찬을 받았다. 이양은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을 통해 요리와 제과를 배우면서 푸드스타일리스트를 장래희망으로 정하고 중학교에서도 요리 공부를 계속해 조리과가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요리학원에 등록하고 본격적으로 요리를 배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요리대회에 나가기 시작했고요. 각종 행사에 나가 봉사하면서 요양원 식사도우미, 무료급식 나눔 등을 한 것도 경험을 쌓는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국제요리경연대회, 남도요리경연대회, 월드푸드 챔피언십 등 각종 요리대회에 나가 상을 수상하고,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여러 대회가 지연되거나 취소된 가운데 전남도 지방기능경기대

회에 나가 금상을 받았다. 전남 대표로 나간 전국기능대회에서는 동상을 수상했다. 2학년이 되면서 1학년 때 출전한 대회에 다시 나가 더 향상된 실력으로 더 높은 위치에 오르는 '오기'도 가졌다. 대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그녀는 한식·양식 조리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했다.



“20살이 되면 세계대회에 국가대표로 나가 세계 각국의 요리사들과 실력을 겨뤄보고 싶습니다. 그들이 저보다 뛰어나다면 그 자리에서 습득해 연습한다면 다음에는 넘어설 수 있겠죠. 푸드스타일리스트가 돼 재능이 있지만 경제적, 환경적인 여건으로 요리를 배울 수 없는 학생들에게 요리 강의를 하며 재능기부도 할 생각입니다. 다만 그 전에 제가 자신있는 양식 요리로 세계를 한 번 떠들썩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현 수



새천년 으뜸인재('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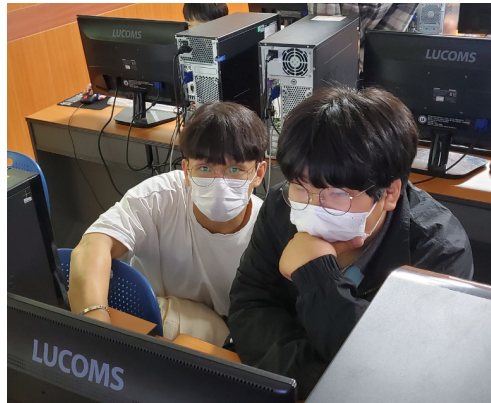
- 동신대
- 미래리더(기계공학)
- 소리위치 추적 지능형 제어방법 및 시스템 특허 출원



기계공학 연구 매진 ‘소리 위치 추적’ 특허 출원
고등학생 3D모델링 체험 · 교육 보조강사 활동도

“**평**생 농사를 지으신 아버지의 영향이 컸습니다. 아버지가 기계를 너무 잘 다루셔서 인근 동네에서까지 농민들이 찾아오곤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이고요. 제가 그 손기술을 그대로 물려받았는지 기계를 다루는 것에 재미를 느끼고, 전공도 그에 따라 선택했습니다.”

지난 2020년 전남도의 으뜸인재로 선정된 이현수(24·동신대 에너지전기공학부·사진)씨는 벌써 졸업반이 됐다. 본격적으로 미래를 고민하고 있는 그는 우선 2학기부터 나주혁신산업단지의 한 기업에 인턴으로 들어가 변전기 설계를 배울 예정이다. 이후 취업해서 학비를 마련하면 석·박사 취득에 도전하겠다는 각오다.





2022 으뜸인재
새천년 으뜸인재('20)

이현수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운동, 공부를 반복하면서 존경하는 아버지(이성엽·57)와 어머니(김미숙·54) 일을 돕기도 합니다. 주변 후배들과 모임을 하면서 좀 더 노력해 전남도 으뜸 인재에 도전해볼 것을 권하기도 하고요.”

이씨는 ‘소리 위치 추적 지능형 제어 방법 및 시스템’을 특허를 출원하고, ‘2021년 전국 공학 페스티벌 창의적 종합설계 경진대회’에서 팀 특별상을 수상할 정도로 기계공학 분야에서 자신감을 쌓아가고 있다.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기계 부품의 작동 원리와 역할 등 기계에 관한 여러 지식을 습득하고, 다양한 기계류를 분해·조립해 본 것이 큰 도움이 됐다. 고된 농사일을 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농기계를 이용해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농촌 환경도 개선했으면 하는 것이 그의 소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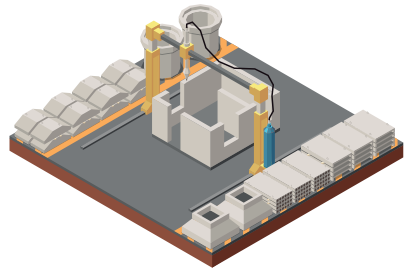
“**대**학에 들어가 기계공학을 전공으로 선택한 뒤 4차산업혁명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자 ‘지능형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하는 방안을 배우기 위해 또 다른 전공으로 선택하는 모험을 했습니다. 3D 프린팅 기술에도 관심을 갖고 선후배들과 동아리를 만들어 연구했죠.”



전공 강의에서 미처 배우지 못한 것들은 이씨가 주도해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토론·연구하며 습득해나갔다. 여기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공학용 소프트웨어인 매트랩(MATLAB)을 이용해 코딩 능력을 습득하고 있다. 자신이 배운 것을 후배인 고등학생에게 가르치기 위해 3D모델링 체험 및 교육 보조강사로도 활동중이다.



“최선을 다해야죠. 전남도의 으뜸인재로 선정되자 부모님, 친척, 친구, 선후배들 모두가 너무 좋아하고 큰 축하를 해줬습니다. 보답을 하려면 그에 맞는 실력과 품성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저의 기술과 기계로 돈을 번다면 부모님께 아담한 한옥을 지어드리는 것이 지금은 목표입니다.”





이 은 빈



새천년 으뜸인재('21, '22)

- 전남체육고
- 예체능리더(체육-육상)
- 제50회 전국소년체전 대회4관왕



육상 女 100m 11초92로 전국체전 우승...폭풍 성장에 기대감
 “운동 즐기니 기록도 좋아져...장래희망은 체육심리학 전문가”

이은빈(16·전남체고 1년)양은 전남체육회 육상 지도자들 사이에서 ‘믿음을 주는’ 선수다. 꾸준한 노력으로 자신이 가진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성장해가기 때문이다. 이 선수는 지난 9일 울산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 103회 전국체육대회 육상 여자 고등부 100m 결선에서 11초 92로 우승했다. 종전 자신의 기록 12초02를 넘어선 개인 최고 기록이었다.

이 선수가 지난 8월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던 “올해 안에 11초대로 진입할 것”이라던 목표도 거뜰히 달성했다. 이 선수는 이번 전국체전에서 육상 3관왕을 차지했다.

이 선수의 다음 목표는 내년 아시안게임 출전과 여자 100m 한국 신기록(11초 49·이영숙·1994년)을 새롭게 쓰는 것이다.

30년 넘게 깨지지 않은 기록이지만 이 선수의 성장을 지켜본 체육인들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출전한 4개 대회 9개 종목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 성적을 감안하면 기대해볼만 하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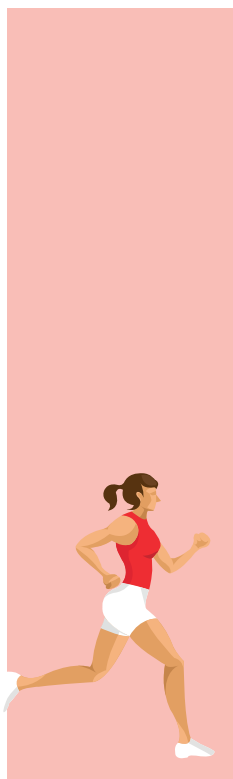
이 선수의 운동 규칙은 ‘다른 선수들보다 10분 먼저 (운동장에) 나 오고 10분 뒤 (운동장을) 나가는 것’이다. 10분 밖에 안되는 짧은 시





2022 으뜸인재
새천년 으뜸인재('22)

이은빈



간이지만 몸 푸는 시간을 더 가질 수 있고 한 종목의 웨이트 트레이닝을 더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자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이 선수가 지난해 '새천년 으뜸인재' 체육리더 부문에 선정되는가 하면, 올해 전남도의 '새천년 으뜸인재'에 재선발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이은빈은 중학교 시절부터 '단거리 유망주'로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나간 제 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2019년)에서는 여중부 100m, 400m 계주에서 2개의 금메달을 따더니, 제 50회 전국소년체육대회(2021년)에서는 100m, 200m, 400m 계주, 1600m 계주에서 4관왕에 올랐다. 남악초교 3학년 때 지역 군 단위 대회에서 1~2등을 하면서 재미를 느껴 5학년 때부터 전남체육중 육상 위탁교육을 받으며 선수 생활을 시작했다.

이 선수는 "(육상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운동하는 게, 뛰는 게 너무 좋았다"고 했다. 재미도 있고 믿고 응원해주는 부모님까지 든든한 우군으로 두면서 자신감도 생겼다. 그는 오후 내내 트랙을 뛰고 난 뒤에도 "즐겁고 좋다"고 했다.

MZ 세대답게 즐겁게 열중하니 기록이 나뉘지 않는다. 이 선수의 지난해 100m 개인 최고 기록



은 12초1.1년 사이, 11초92로 0.19초 줄었다. '한국 기록 도전 계획'이 무모하게 들리지 않는 이유다. 올해는 청소년국가대표에 선정됐다.

새천년으뜸인재로 선정된 것도 이 선수의 즐거운 운동에 도움이 됐다고 한다.

이 선수는 “으뜸인재로 선정되면서 조금 더 수월하게 운동을 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했다. 육상에 필요한 장비도 더 갖추 수 있고 심적으로 편안한 상태에서 운동에 더 전념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이 선수는 매일 새벽 6시부터 오전 7시 30분까지 오전 운동을 하고, 오후 2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오후 운동 스케줄을 소화하면서도 매일 영어 학원을 다니며 부족한 학업을 보충하고 있다. 장래 희망인 체육심리학 분야 전문가를 위해 체육 이론과 영어 회화가 필요하다는 게 이 선수 생각이다.

운동을 하다보니 정신적으로 흔들릴 때가 있는데 보다 전문성을 갖게 되면 나중에 비슷한 고민을 가진 후배 선수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이 선수 생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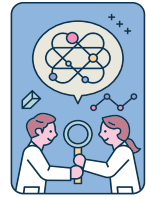
이 선수는 “기숙사 생활에 훈련 시간이 많아 지금 제가 받은 응원과 도움을 많이 돌려드릴 수는 없지만 **꼭 필요한 분야에 힘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환경 복합소재 등 새로운 분야 연구하겠다”

남 해 은



새천년 으뜸인재('20)

- 서울대 대학원
- 미래리더(생명공학)
- 전북대(으뜸인재 선발) → 서울대 대학원 입학
- SCI급 논문 게재 및 언론 보도



엄마 옷가게서 섬유에 관심...끈질긴 연구로 성과
전북대 4년 때 SCI급 국제저널 공동 1 저자 참여

“다른 곳에 있더라도 고향인 전남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남해은(23·서울대 재료공학부 석사 과정)씨는 궁금했던 관심 분야에 대한 호기심을 끈질기게 전공과 연구로 이어가면서 성과를 내고 있는 인재다. 전남도가 '2020 새천년 으뜸인재 미래리더'(공학)로 선정한 데도 이같은 끈질긴 관심 분야에 대한 연구 의지와 발전 가능성을 높이 샀기 때문이다.

남씨는 전북대 고분자섬유나노공학부 4학년 때 SCI급 국제 저널 'polymers'에 공동 1 저자로 참여해 논문을 게재했다. 구리보다 100배 이상 전기가 잘 통하고 강철과 비교하면 200배 이상 강도가 강해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그래핀을 활용한 연구로, 그래핀의 평판 크기를 확장해 복합 재료의 열 전도를 높이는 방안을 규명한 논문이었다.

갑작스럽게 낸 연구 성과가 아니었다.





2022 으뜸인재
새천년 으뜸인재('20)

남해은

남씨는 고등학생 때부터 섬유에 관심이 많았다. 모친이 운영하는 옷가게를 자주 가다보니 걸려 있는 옷의 재질에 따라 특성이 다른 점에 호기심이 생겼고 대학에서 자연스럽게 전공으로 섬유공학을 택했다. 섬유공학을 공부하면서 플라스틱을 포함한 고분자 유기화합물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고 다시 친환경적 복합소재로 확대되는 등 새로운 분야로 관심을 키워갔다는 게 남씨 설명이다.

남씨는 관심에만 그치지 않았다. 학부 과정에서 연구생을 자원해 복합재료 연구실에 들어가 신소재인 그래핀을 활용,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최상의 특성을 얻어내는 복합 재료 연구를 시작했다.

학부생인 남씨에게 연구가 쉬울 리가 없었다. 특히 연구의 필수인 전기공학 분야는 기존 전공인 고분자 섬유공학과 전혀 달라 어려움이 많았다. 남씨는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익히고 실험실 동료와 선배들에게 질문해가면서 공부해 논문을 완성했다.

전남의 으뜸인재 지원은 이런 남씨의 연구를 돕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남씨는 “연구 과정에서 필



요한 물건을 사는데 도움이 됐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면서 “연구를 지원해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감사하다”고 했다. 지역 인재를 발굴하고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전남의 인재 육성 정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만 하다.

남씨는 으뜸인재 활성화 방안과 관련, “으뜸인재로 선발되면서 참여자들끼리 교류가 없었다”면서 “선발된 인재들이 어떻게 꿈을 이뤄가고 있는지, 그들의 활동 과정을 통해 후배들이 배울 건 없는 지 등을 들여다볼 시스템을 만들어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남씨는 현재 서울대 대학원 석사 과정을 밟으며 다른 관심 분야에 대한 연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복합재료 설계와 배터리 분야를 융합해 최고 효율을 낼 수 있는 전극에 대한 연구를 해보고 싶다는 게 남씨 생각이다.

남씨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제 고향은 전남(장흥)으로, 전남이 필요로 하는 인재, 전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 상 훈



새천년 으뜸인재('22)

- 영광홍농중
- 미래리더(자연과학)
- 청소년 발명아이디어 경진대회 장관상(대상)



‘시각장애인 보행 모자’ 등 일상 속 불편함 해결 방안 고민
 ‘대한민국 청소년 발명 아이디어 대회’ 대상 등 잇단 수상

“**시**골에서 농사일 도와주는 아이들을 본 적이 없어요. ‘농부’가 꿈인 사람이 없는 시골에서도 농사를 돕는 기계가 있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올해 전남도의 ‘새천년 으뜸인재 미래리더(자연과학)’로 뽑힌 고상훈(15·영광 흥농중 2년)군의 생각은 여느 중학교 2학년생과는 달랐다.

고 군의 꿈은 발명가다. “주변 사람들이 일상 생활을 하면서 불편함을 느끼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고 군 생각이다.

어리지만 주변 사람들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자신의 어려움처럼 생각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느라 고민할 때가 많다. 그래서 동네를 돌아다니다, 친구들과 학교에서 놀다가, 학원을 오가면서 문득 떠오르는 불편함을 그대로 지나치는 일이 없다. 자신만의 노트에 적어놓고 해결 방안을 고민하다가 하나둘 만들어 보기 시작한 발명품이 여럿이다. 상도 자주 받았다.





2022 으뜸인재
새천년 으뜸인재('22)

고상훈

지난해 9월 서울에서 열린 제 20회 대한민국 청소년 발명 아이디어 대회에서는 대상을 받았다. 고 군 생각노트에 적힌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시각장애인용 보조 보행 모자가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각장애인용 흰 지팡이가 장애인들 진행 방향 앞과 다리 쪽 장애물을 인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반면, 머리 위쪽 장애물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착안한 발명품이다. 보행 모자를 쓰면 머리 위쪽 장애물을 센서로 파악해주는 게 특징이다.

지난 2019년에 열린 전남과학창의대회에서는 금상을 받았다. 당시 대회에서는 '안전한 놀이기구를 만들고 코딩하라'는 미션을 함께 출전한 팀 동료들과 고민한 결과물로 수상했다. 같은 해 열린 제 37회 전국청소년과학탐구대회에서도 초등부 동상을 받는 등 출전할 때마다 발명품에 대한 주변 평가도 높아졌다.

고 군은 "발명이 재미있다"고 했다. "내가 재미있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된다니 좋지 않냐"고 했다. 고 군이 발명가를 꿈꾸는 이유다. 엉뚱하다고 나무라거나 등짝을 후려치는 대신, 응원해주는 부모님 덕에 생각해



넌 독특한 아이디어가 발명대회 등에서 좋은 결과를 냈다고도 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로봇 관련 전문교육원을 다니며 기계 작동 원리, 코딩, 3D 프린팅 등에 관한 지식을 쌓은 것도 발명에 도움이 됐다.

고 군은 “나이들어 농사짓는 어른들이 힘을 덜 들여도 될 장비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고 군은 “제가 살고 있는 시골에서 도시로 빠져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람이 없다고 급한 농사일을 안할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사람이 없다면 기계라도 농사일을 도와줬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발명에만 관심 있는 건 아니다. 트럼펫을 배워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는가 하면, 전교 부회장으로 학교에 ‘예체능올림픽’을 건의한 뒤 허가를 받아내 친구들과 즐기는 등 또래 아이들과 놀기에도 진심이다. 간접 경험도 발명 아이디어를 얻는데 도움이 된다고 매주 다양한 주제의 책을 찾아 읽는다고도 했다.

고군은 “매년 열리는 여러 대회에 나가 다른 친구들의 아이디어도 보고 학교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얘기하다보면 일상에 도움이 되는 좋은 생각이 떠오를 것”이라며 **“지역 사람들의 일상 생활에 도움이 되는 발명가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어르신도 공감하는 애니메이션 만들고 싶어요”

김 사 라



새천년 으뜸인재('20, '22)

- 한국예술종합학교
- 예체능리더(미술)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고등부 만화부문 1위



외판 시골살이 친구 돼 준 만화…전국학생만화공모전 금상
 “수도권 집중·지방 소외 등 작품에 다양한 경험 녹여내겠다”

“서울 위주의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작품에 녹여내고 싶습니다. 지방에 살면서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사람들, 가장의 역할을 해야 하는 제 또래 등을 작품 속에 담아내고 싶어요.”

서울공화국으로 불릴 정도로 모든 게 집중되는 수도권 중심 사회 속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방, 변방에 있는 것만으로 소외됐다고 느끼거나 부끄러워하는 듯한 사회 분위기를 녹여내는 작품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것, ‘시골 출신’ 여성 애니메이션 감독을 꿈꾸는 20대 여대생의 바람이다.

김사라(21·한국예술종합학교 2년)씨는 젊은이 뿐 아니라 나이 지긋한 어른신들도 공감할 애니메이션·만화를 만드는 게 꿈이다. 애니메이션 감독을 꿈꾸고 있지만 자신의 경험이 담긴 작품을 제작하는 데 적합한 만화·그림책 분야, 게임 등에도 진로를 열어놓고 있다.





2022 으뜸인재
새천년 으뜸인재('22)

김사라

김씨는 올해 새천년 으뜸인재 예체능리더(미술 분야)로 선정됐다. 전남예술고를 다닐 때부터 1등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해당 분야에서 재능을 인정받았던 김씨는 예술고 재학 시절 또래 친구들과 한 팀을 이뤄 일본에서 열리는 국제만화대회에 참가하기도 했다. 당시 국내에서 치러진 예선과 달리, 일본에서 치러지는 본선의 경우 일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 참여를 만류하는 분위기가 컸다. 김씨 등은 그러나 학교 측의 설득을 이끌어내면서 한국과 일본의 대표 캐릭터가 만화를 통해 화해해 새롭게 양국 관계가 시작되는 '원년'이 됐으면 하는 의미를 담은 작품으로 본선에 참가했다고 한다.

김씨는 “무안군 현경면 외딴 마을에서 살면서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기 쉽지 않다보니 만화와 애니메이션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고 했다. “어디에서 만날까, 몇 시까지 와”라고 하는 친구들과 만나려면 먼 소재지까지 1시간 남짓 걸어가거나 버스 시간을 맞춰야 하는데, 약속 잡기가 쉽지 않아 포기하는 대신에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자주 접하면서 관심을 키웠다는 것이다.

이 때쯤부터 써온 일기는 김씨의 작품 구상을 위한 소중한 아이디어 노트다. “당시엔 커가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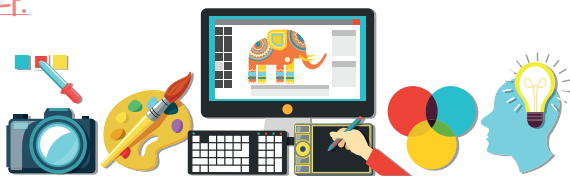
겪었던 이런저런 경험과 이야기를 풀어낸 기록이었지만 지금은 작품에 필요한 소재를 현실화시키고 구체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김씨 설명이다.

김씨는 “개인적 경험이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래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다”고 말했다. 경험이 작품의 수준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재료인 만큼 보다 많은 것을 경험해 작품 속에 표현해내고 싶다는 게 김씨 생각이다.

김씨의 이같은 자전적 경험을 담은 ‘달려라 아이’라는 작품은 지난 2020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주최로 열린 ‘제 21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금상을 받았다.

수상작품은 조부모 밑에서 자라며 겪었던 자신의 이야기들을 ‘달려라 하니’를 오마주한 작품 속에 풀어냈었다. 가족에 대한 개념이 흐릿해지는 시기, 시대가 변해도 달라지지 않는 가족의 중요성과 끈끈함을 만화에 담아보자는 생각으로 작품을 만들었는데 심사위원들과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김씨는 “애니메이션이 나이 어린, 젊은 사람들만 공유하는 문화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젊은 주인공이 등장하는 만화나 애니메이션이라도 나이 지긋한 노인들, 어르신들 모두 공감하는 그런 작품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김 우 현



새천년 으뜸인재('21, '22)

- UNIST
- 미래리더(공학)
- 세포분열 모형과 근육 움직임을 확인하는 키트 고안, 시제품 제작



고3때 근육 움직임으로 전기 신호 제어하는 키트 개발
의대 교류 등 통해 뇌파 이용 센서 연구 의공학자 될 것

“어르신들, 장애를 가진 분들의 일상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로봇 기술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올해 새천년 으뜸인재 미래리더(공학 부문)로 선정된 김우현(20·울산과학기술원 1년)씨의 꿈은 의공학자다.

“어렸을 때 물리치료사인 아버지 치료실을 찾은 환자들이 재활 치료를 받고 완치해 이전처럼 걷게 되자 환하게 웃는 모습이 무척 좋았어요. 그 때 그런 분들에게 웃음과 희망을 드리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외갓집인 시골에 갈 때마다 접했던 힘겹게 걸어다니시는 노인분들 모습, 휠체어를 타거나 신체적으로 불편한 분들이 집 밖에서 잘 안보이는 이유 등에 대한 고민은 김씨의 진로를 더 확고하게 했다. 의사를 택하지 않은 건 로봇에 대한 관심이 더 컸기 때문.





2022 으뜸인재
새천년 으뜸인재('22)

김우현



로봇은 김씨의 진로와 꿈을 이루는 걸 돕는 '열쇠'였다. 김씨는 초등학교 3학년 때 군사용 로봇이 나오는 영화를 본 뒤 '사람을 돕는 로봇'에 관심을 갖게 됐다. 과학전람회 참여를 계기로 꿈을 이루는 방법을 찾는데 관심을 쏟았다.

단순한 관심으로만 끝난 게 아니었다. 김씨는 매년 청소년 과학탐구대회, 자연관찰대회, 학생탐구실험, 정보올림피아드 등에 출전하면서 관심 분야에 열정을 드러냈고 여러 차례 수상을 하기도 했다.

순천 매산중을 거쳐 전남과학고에 진학한 뒤에는 더 적극적, 전문적으로 다가갔다. 그는 고등학생이 된 후 재활치료용 외골격 로봇을 만드는 연구를 진행했다. 1학년 때는 근육 움직임을 확인하는 시제품을 제작한 데 이어 2학년 때는 외골격 로봇 개발에 집중했다. 이 때 손이 불편해 장난감 조종이 어려운 아이를 보고 팔의 근전도 신호로 조종이 가능한 장난감 자동차를 만들기도 했었다. 고교 3학년 때는 입시 준비를 하면서도 근육의 움직임과 근전도 센서를 이용해 전기 신호를 제어하는 키트 개발에 공을 들였다. 그 결과가 고교 2년 때 전국과학전람회 우수상, 3학년 때 전국학생발명품 경진대회 특상 등을 받는 등 성과로 이어졌다.



김씨는 로봇 기술에 집중할수록 배울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훨씬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특히 로봇 기술을 연구하면서 양팔 움직임에 따라 바퀴의 회전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완할 필요를 느끼고 뇌파를 이용한 센서 개발 연구를 하고 있는 울산과기원(UNIST)으로 진학을 결정했다.

김씨는 입학 당시 유니스트와 울산대 의과대학생들 간 교류 수업을 한다는 소식도 자신의 관심 분야인 의공학 분야의 기술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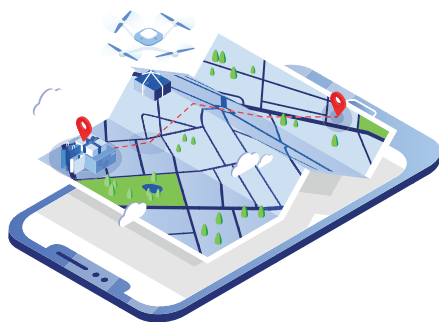
김씨는 “내년부터 인간 공학과 뇌인지 연구실 등에서 인턴으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있다”면서 “웨어러블 분야를 포함한 노인과 장애인을 보조하는 로봇 기술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김씨의 롤 모델은 유명한 로봇 공학자 데니스 홍 미 UCLA 교수다. 데니스 홍 교수는 미국 최초의 휴머노이드 로봇 ‘찰리’ 개발(2010년), 세계 최초로 시각장애이용 자동차 개발(2011년) 등으로 알려진 로봇과학자다. 데니스 홍 교수처럼 노인, 장애인 등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웃들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는 기술과 정책 개발에 필수적 역할을 하고 싶다는 게 그의 바람이다.





김민재



새천년 으뜸인재('22)

- 고흥산업과학고
- 미래리더(블루이코노미)
- 전남최초 전국 하동드론레이싱 결승진출(4위)
- (목표) 드론제어, 드론레이싱 국가대표



초등생 때부터 ‘덕후’...소장 드론만 13대 · 제작도 가능
 “후배들 위해 드론 책도 내고 새로운 분야 개척하겠다”

김민재(17·고흥산업과학고 1년)군은 4년 째 드론에 푹 빠졌다. 목포 하당중학교 1학년 때부터 매일같이 1시간 이상 드론을 날리고 있다. 경기용 드론 8대와 촬영용 드론 4~5대는 김군의 최애 소장품이다. “하루라도 연습을 안 하면 티가 나 조종 연습을 빠트리진 않는다”고 했다. 연습하면서 떨어트린 드론만 50대가 넘는다.

2022년 전남도의 새천년 으뜸인재 미래리더(블루이코니미)로 선정된 김군은 초등학교 때 접한 드론의 매력에 빠져 드론에 몰입하고 있는 ‘덕후’(마니아를 가리키는 말)다. 장래 희망도 드론레이싱 국가대표다.

국가대표가 돼 2025년부터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 국제기능올림픽에 출전, 금메달을 따는 게 현재 목표다. 국가대표가 된 뒤에는 기능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것,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신의 노하우를 엮은 드론 제어분야 책을 내고 싶은 계획도 세워놓았다.

“드론에 대한 관심은 많았는데 접할 수 있었던 드론 정보가 많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다. 드론을 쉽게 접할 수 있다면 흥미를 갖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지 않겠냐”는 게 김 군 생각이다.





2022 으뜸인재
새천년 으뜸인재('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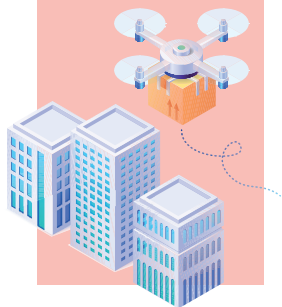
김민재

드론을 날리면서 드론으로 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싶다는 것은 또 하나의 꿈이다.

드론이 국내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떠오르며 관심이 커지던 2017~2018년께. 김군도 드론에 흥미를 갖기 시작했고 관심을 키우면서 빠져들더니 몰입하기 시작했다. 좋아하는 분야를 즐기면서 노력까지 하다보니 실력은 눈에 띄게 늘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인 2017년부터 참가하기 시작한 각종 드론 레이싱 대회에서 상을 받는 일도 많아졌다. 2019년 중학교 1학년 때 공군참모총장배 스페이스챌린지 지역예선에서 금상을 받았고 중학교 3학년 때 경남 하동에서 열린 전국드론 레이싱대회에서는 전남지역 학생 최초로 결승에 진출, 4위에 올랐다. 올해도 전국드론레이싱 대회에 출전해 '청소년아날로그 드론레이싱' 부문 3위에 올랐다.

하드웨어 뿐 아니라 드론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까지 깊어지면서 스스로 드론을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올랐다. 이 때 방제형 드론으로 시험을 치르는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자격증도 획득했다.



자신감이 생기면서 혼자 즐기던 드론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함께 즐기는 일이 많아졌고 가끔 찾아가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드론형’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해졌다.

고교도 드론학과가 있는 고흥산업과학고를 택했다. 고흥이 전남에서 유일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된데다, 무인항공 특화농공단지 조성 등 드론과 관련된 다양한 시험·평가·실증 사업 등이 가능한 ‘드론중심도시’로의 육성을 추진중인 만큼 지역의 강점을 활용하면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김군은 내년 열리는 기능올림픽에 드론제어 부분에 출전하기 위해 드론 분야 전공지식을 매일 공부중이다. 최근에는 인천에서 열리는 산업인력공단의 기술 연수도 받고 있다. 드론운영 프로그램 정보를 접하다보니 정보처리 자격증에도 관심을 갖고 있으며 드론 제어에 필수인 영어 공부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를 즐기면서 몰두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부모님도 김군의 열렬한 후원자가 됐다.

김군은 “고교 졸업 전 드론레이싱 국가대표가 되고 싶다”면서 “드론을 날리며 내가 할 수 있는 분야를 새롭게 찾아 개척하고 싶다”고 했다.





강 다 현



새천년 으뜸인재('22)

- 여수삼일중
- 예체능리더(체육)
- 103회 동계체육대회 알파인스키 전관왕
- 2022년 꿈나무 국가대표 선발



7살 때 부모품 떠나 무주·강원도로...초6때 전국체전 4관왕
강철 마인드 알파인 스키 '샷별'...“해외 전훈 부담 덜었어요”

강다현(14·여수삼일중 1년)양은 전남 체육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스키 알파인의 '샷별'이다.

강양은 여수 죽림초등학교 6학년때인 올해 2월 강원도에서 치러진 제103회 전국동계체전 4관왕이다. 초등학생 때 스키 알파인 4개 세부종목인 슈퍼대회전·회전·대회전 금메달과 이들 메달 종목을 합산한 복합 기록에서까지 금메달을 따내며 모두 4개의 금메달을 휩쓸었다.

전남체육 역대 동계체전 사상 첫 4관왕 달성자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남에서 유일하게 선발된 꿈나무 국가대표(초등 5년~중학교 1년)이기도 하다.

실력과 강인한 정신력까지 갖춘데다, 즐기면서 타는 스키에 대한 마음가짐 등이 시너지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체육계 평가다.





2022 으뜸인재
새천년 으뜸인재('22)

강다현

강양은 6살 때 스키를 접한 뒤 폭 빠졌다. 7살부터는 스키를 타기 위해 겨울에도 눈 내리는 일이 드문 고향 여수를 떠나 홀로 생활하며 소속 스키 팀원들과 스키를 탔다.

무주·강원도 등으로 돌아다니며 스키를 타다보면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일이 잦을 수 밖에 없다. 어린 나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고 부모님은 걱정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스키 좋아하는 티'를 팍팍 내는 딸이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강양 부모님은 걱정을 얼굴에 드러내지 않고 든든한 후원자로 격려하며 큰 힘을 실어줬다.

좋아하는 만큼 실력도 늘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합에 나가면서 자신감까지 붙어 4학년때부터는 시상대 올라가는 일이 많아졌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참가한 제51회 대한스키협회장배 전국스키대회전(2021년) 1위, 제3회 YMCA 전국스키대회(2021년) 1위에 올랐고 6학년 겨울방학때는 제52회 대한스키협회장배 전국스키대회전 4관왕, 전국동계체전 4관왕(2022년)까지 달성했다. 초등학교 때 받은 상만 30개가 넘는다.



실력을 인정받으면서 강양은 올해 전남도의 새천년으뜸인재(예체능 리더)에 선정됐다.

좋아하는 스키를 타면서도 겨울에만 탈 수 있는 훈련 환경 때문에 가져야 하는 해외 전지훈련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았지만 으뜸인재로 선발되면서 조금 덜게 됐다.

강양은 “스키 장비가 비싸고 훈련비용도 많이 들어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었는데, 으뜸인재로 선발돼 장학금을 지원받게 돼 뿌듯하다”고 말했다.

강양은 장래 계획도 아무지게 세워놓았다. “대한민국을 빛낼,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워하는 스키 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청소년 국가대표-국가대표 상비군-국가대표로 선발되는 단계적 목표를 세웠다. 그렇게 노력하다보면 국제대회 메달을 딸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지 않겠냐는 게 강양 생각이다.

강양은 “전남에서 꿈나무 국가대표(스키)로 유일하게 선발됐으니 더욱 열심히 해 국내 동계스포츠계를 빛낼 대표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 하 은



새천년 으뜸인재('21, '22)

- 전남예술고
- 예체능리더(클래식), 재도전
- 전남예술고 수석입학



지난해 호남예술제 은상 등 잇단 수상...세월호 추모행사도
“다음 목표는 한예종 입학해 더 큰 무대에서 첼로 연주하는 것”

“첼로 연주를 하면서 느낀 울림과 따뜻한 메시지를 다른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노하은(17·전남예술고 1년)양의 장래 희망은 “첼로 연주를 통해 알게 된 음악을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누는 첼리스트”가 되는 것이다. 음악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연주를 들려주며 음악이 주는 또 다른 세상과 감정을 전해주는 메신저가 되고 싶다는 성숙한 답변을 내놓을 정도로 소신이 뚜렷했다. 전남지역 다른 연주자들과 오케스트라를 이뤄 세월호 추모행사(8주기), 가정의 달 기념행사 등에서 음악을 나누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이같은 생각과 무관하지 않다.

노양은 올해 전남도의 새천년 으뜸인재 예체능리더(첼로)로 뽑혔다. 첼로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부모님과 간 교회에서 들은 첼로 연주를 접한 뒤 폭 빠져 시작했다는 게 노양 설명이다.



2022 으뜸인재
새천년 으뜸인재('22)

노하은

“힘들 때 첼로를 연주하면 그 울림과 깊이가 다른 악기들과 달라 위로를 얻을 수 있고 마음도 차분해지는데, 그 때 기분이 참 좋다”는 게 노영이 전해주는 첼로의 매력이다. 선 굵은 중저음의 매력을 접한다면 첼로를 잊기 어려워져 ‘이만 하면 됐어’가 아니라 자신이 만족할 때까지 모든 것을 쏟아붓고 싶어진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연습 시간을 늘려가면서 본격적으로 매달린 이유이기도 하다. 또래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 첼로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중학생이 된 뒤에는 매일 5~6시간 연습을 할 정도로 집중했다. 좋아하는 음악을 꾸준히 연습하면서 중 2학년 때 찾아온 슬럼프를 이겨냈고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성과도 났다.

중학교 3학년 때인 2021년 제 66회 호남예술제 중등부 첼로 부문 은상을 수상했다. 지난 1956년 첫 대회를 개최한 호남예술제는 전국을 대표하는 종합문화예술축제다. 광주·전남 뿐 아니라 명실상부 전국을 대표하는 종합예술제로 자리잡으면서 수많은 예술인들을 배출하는 등 한국 예술계의 텃밭 역할을 해오고 있다.



같은 해 열린 전남 제 17회 전국음악콩쿠르 대상전 현악기부문 첼로 우수상, 전남 제 15회 전국음악콩쿠르 광양 현악기부문 첼로 2등상 등도 받았다.

전남예술고에 입학한 올해에는 처음 이화콩쿠르를 경험하면서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고 했다. 자신만의 해석을 담은 연주로 심사위원, 관객들을 만족시켜야 하는 콩쿠르에서 당시 참가자 대부분인 수도권 예술고 학생들과의 경쟁은 새로운 자극제가 됐다. 음악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부모님의 응원과 격려도 힘이 됐다.

노양은 고교 재학 중 호남예술제 금상, 이화콩쿠르 수상 등을 목표로 도전 계획을 꼼꼼히 세워놓았다. 다른 악기와 조화를 이루는 합주를 통해 관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연주를 하는 데도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예술고를 졸업한 뒤에는 한예종에 입학, 더 큰 무대에서 첼로 연주를 하겠다는 게 그의 희망이다.

노양은 **“첼로 연주를 통해 음악이 주는 따뜻함을 다른 분들과 나누는 첼리스트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 세 아



새천년 으뜸인재('22)

- 순천대
- 미래리더(인문사회)
- 제15회 전국대학생 순천만 무진기행 백일장 3등



순천 선암사 · 송광사 배경 청춘물 준비 중
글 쓰며 연출 · 영상 촬영 등 역량도 키울 것

“코로나, 경기 침체, 소득 양극화, 기후변화 등 힘들고 불안한 시대에 제가 쓴 글로 만든 드라마가 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희망과 믿음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최세아(23·순천대 3학년)씨의 꿈은 작가다. 독자들이 자신의 글을 읽음으로써 공감하고 위로를 줄 수 있는 작가, 힘든 하루를 마무리하고 더 좋은 미래를 기대하며 내일을 살아갈 힘을 주는 작가, 지역의 토속 설화를 콘텐츠로 지역을 알리고 싶은 드라마 작가다. 작가가 쓰는 글은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인 만큼 힘들고 팍팍한 세상 속에서도 따뜻하고 정을 느낄 수 있는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바람도 갖고 있다.

최씨의 이같은 꿈을 이루기 위해 순천대 문예창작과에 입한한 이후 또래 학생들과 소모임을 통해 소통하고, 학교 교수님과의 동행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차근차근 밝아나가고 있다.





2022 으뜸인재
새천년 으뜸인재('22)

최세아



고등학생 때 순천대 문예창작과를 택한 것도 취업 위주인 다른 대학 문예창작과 커리큘럼과 달리, 시·소설 등 순수문학 쪽에서 강점을 갖고 있어 향후 작가로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근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이 다양해지고 영화·드라마 경계가 모호해지는 만큼 작가로서의 미래도 어둡지 않다는 게 최씨 생각이다.

지난해 열린 제 15회 전국 대학생 순천만 무진기행 백일장 대회에서 산문 부문 차하(3등)를 수상한 것도 꿈인 작가로서의 자신감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다.

백일장을 통해 새로운 과제와 목표도 생겼다.

우선, “따뜻한 이야기를 특유의 분위기로 담아내는 것 같다”는 심사위원들의 평을 참고해 자신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작가로서 글만 쓰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생각도 갖게 됐다고 한다. 자신만의 독특한 글과 작품을 돋보이게 만드는 데 필요한 연출·영상 촬영 등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최씨가 지난 9월부터 부산에 있는 드라마작가교육원 등을 찾아다니며 전문 교육과정을 듣고 연출·영상·작가 수업을 받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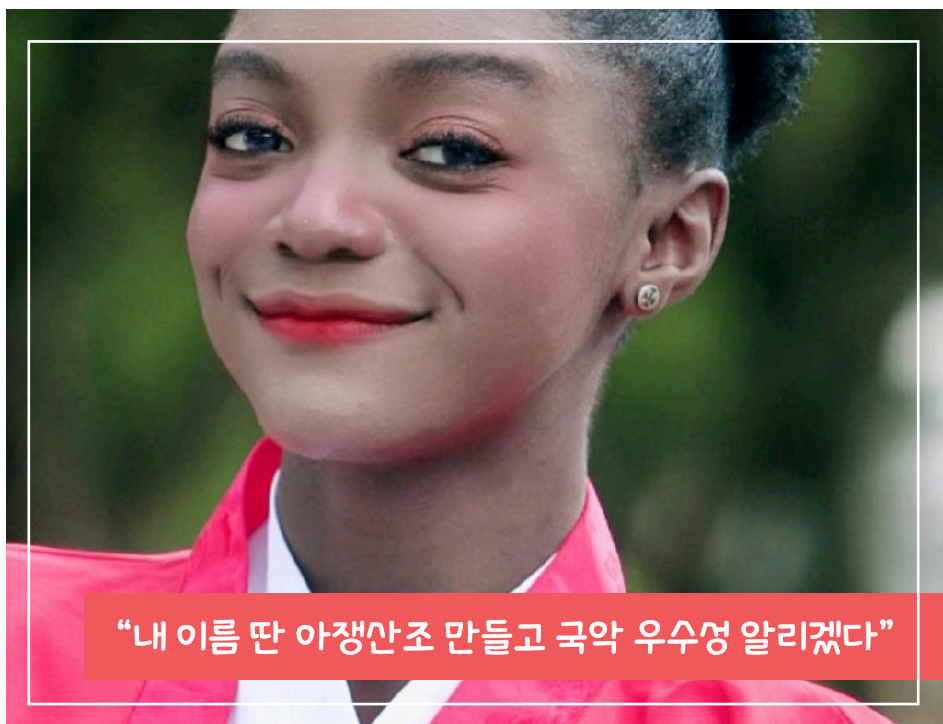
최씨는 “여기에서 내가 쓴 글에 대한 제작사, 다양한 연령층의 수강생들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그가 올해 전남도의 새천년으뜸인재 미래리더(문학) 부문에 선정된 것은 최씨가 꿈꾸는 미래에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줬다.

최씨는 자신의 드라마 콘텐츠로 지역의 토속 설화를 콘텐츠로 하는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다. 여수 거문도 ‘인어’ 신지끼 이야기, 현대사의 비극 여순사건을 다룬 드라마 ‘동백’, 화정면 개도의 450년 된 느티나무에 서린 전설을 바탕으로 만든 웹드라마 ‘마녀목’ 등과 같은 지역 토속 콘텐츠를 담은 드라마로 지역을 알리고 싶다는 것이다. 자신이 살고 있는 순천의 유명사찰인 선암사와 송광사를 배경으로 한 청춘물 시놉시스도 짜놓았다고 했다.

최씨는 “**다양한 뉴미디어를 활용해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로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힘을 주는 작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내 이름 딴 아쟁산조 만들고 국악 우수성 알리겠다”

최 은 지



새천년 으뜸인재('22)

- 진도국악고
- 예체능리더(국악), 카메론 출신(다문화)
- 국악의 매력을 전세계 알리는 것 목표

카메룬서 엄마 따라 5년 전 한국행...독일어 등 4개 국어 능통
댄스·사물놀이도 수준급 “받은 도움 다문화가정에 돌려줄 것”

최은지(19·진도국악고 2년)양에게 꿈을 물었더니 “현재 하고 싶은 건 아쟁 연주자지만 아쟁도 즐기며 하고 싶은 건 다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제가 욕심쟁이예요”라며 생기발랄한 MZ세대의 취향을 드러냈다.

최양은 카메룬에 살다가 한국인과 결혼한 엄마를 따라 한국에 들어온 뒤 광양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우면서 국악을 접했다. 한국의 K-POP도 좋지만 처음 접한 판소리·가야금 등 옛 음악의 매력에 이끌려 광양에서 중학교를 다니다 고교를 진학할 때 진도국악고를 택했다.

아쟁은 국악고에서 처음 본 악기였지만 자신의 귀에 들리는 특별한 아쟁의 소리에 반했다고 했다. 아쟁은 국악기 중에서는 유일한 저음악기다. 이 때 아쟁을 접하면서 시민들에게 아쟁의 매력을 소개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2022 으뜸인재
새천년 으뜸인재('22)

최은지



국악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임에도, 국악인으로서의 발전가능성이 우수하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최양의 국악에 대한 관심과 열의는 상당하다. 한국에 온 지 5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할 뿐 아니라 독일어·스페인어·영어·불어 등 4개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다. 카메룬에 있을 때 영어, 스페인어와 불어를 배웠고 엄마에게 독일어를 배웠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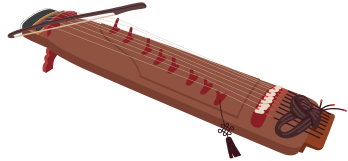
그런데 아쟁은 학교 수업만으로 따라가기 어려웠다고 한다. 개별 레슨을 받아야 하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전남도의 새천년 으뜸인재 발굴 프로젝트를 접해 신청서를 냈는데 선정됐다는 게 최양 설명이다.

최양은 “으뜸인재로 선정돼 소아쟁도 구입하고 개인 레슨 받는데도 큰 도움을 받게 됐다”면서 “너무 감사하고 내가 받은 도움을 다른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꼭 보답하고 싶다”고 했다.

현재 희망이 아쟁 연주자인 만큼 모든 일정이 학교 수업 외 나머지는 아쟁 연습에 맞춰져 있다. 학교에서도 밤 9시30분까지 연습하는 등 하루

7~8시간을 아쟁에 쏟고 있다. 매일 연습을 하는데 눈에 띄게 실력이 올라가지 않을 때면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후회할 때도 있지만 “훗날 좋은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선 지금의 어려움쯤은 참아내야 하지 않겠냐”고 어른스럽게 답하기도 했다.

아쟁 뿐 아니라 올해 순천에서 열린 청소년 끼 경연대회 댄스부문에 참가해 우수상을 받는가 하면, 지난해 치러진 국악부문(사물놀이) 대회에서도 우수상을 받는 등 음악적 자질도 갖췄다.



최양은 아쟁 뿐 아니라 거문고와 무용에도 관심이 있어 부전공으로 선택했다.

최양은 “문화와 피부색, 쓰는 언어가 달라도 음악으로 하나될 수 있기에 국악을 배우고 있는 게 자랑스럽고 한국 전통 음악을 사랑하는 한 명의 국악인으로 우리 음악의 우수성을 알리고 싶다”고 했다. 아쟁산조의 경우 가락을 만든 사람의 이름을 따 “XXX류”라고 불리는 것처럼 자신만의 ‘최은지류 아쟁산조’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욕심도 내비쳤다. 아쟁산조는 아쟁으로 하는 민속 기악독주곡으로, 통상 그 가락을 만든 사람의 이름을 따 ‘XX류’라고 불린다.

최양은 그러면서도 “한국에 와 지금은 국악과 아쟁에 푹 빠졌는데 욕심쟁이라 하고 싶은 게 많다”면서 **“앞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보여줄 수 있는 것도 많지 않겠냐”고 말했다.**



새천년인재육성프로젝트
아름다운 도전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인재는 전남의 미래입니다.

발행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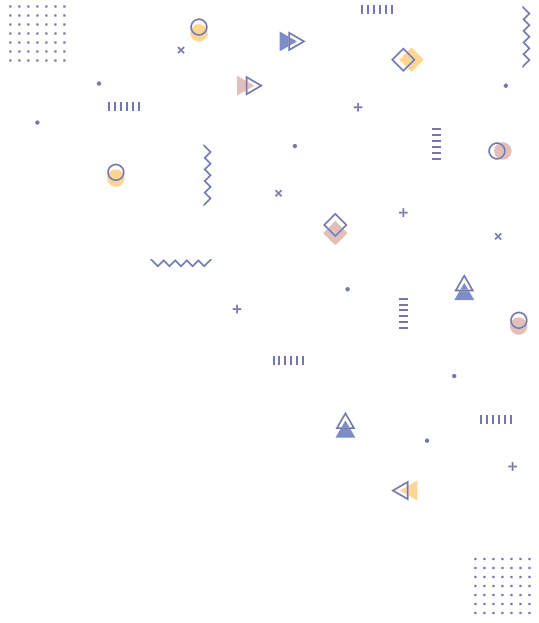
2022년 12월

발행처

전라남도 ·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디자인·인쇄

디자인생각 (061.284.2252)



2022 으뜸인재 길라잡이

